

한·중·일 '상생 가위·바위·보' 하자

동국대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 ... 문화정체성 확립의 계기 마련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이질성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 창출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 건설을 통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1월 15~16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한·중·일 협력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어령 前 장관은 '동아시아의 융합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삼국은 정치와 경제적 접근이 아닌 문화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는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며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시대의 동일성과 지역문화로 표현된다.

"동북아 아시아의 각국이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면 또 다시 패권주의의 재물이 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존과 공생을 강조한 그는, 그 방법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건설을 제안했다.

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그는 "현재 우리에게 통용된 문화의 개념은 '문치교화(文治教化)'가 아닌 서양의 '경자하다'는 의미의 컬처(Culture)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며 이것의 개념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세아라는 명칭은 16세기 후반 마테오 리치가 처음 사용한 말로 고대 희랍의 헤카타이오스에 의해 유래했다. 헤카타이오스가 최초로 그린 세계지도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구분뿐이며, 동서 측이 아닌 남북을 축으로 유럽은 북쪽에 아시아는 남쪽에 그려져 있다.

"아세아라는 지역과 명칭은 있으나 정작 아세아는 없다"고 주장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인용해 희랍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문제에 접근해야 할



동아시아의 융합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이어령 前 장관.

을 전제했다.

"동북아 아시아의 각국이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면 또 다시 패권주의의 재물이 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존과 공생을 강조한 그는, 그 방법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건설을 제안했다.

"동북아 아시아의 각국이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면 또 다시 패권주의의 재물이 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존과 공생을 강조한 그는, 그 방법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건설을 제안했다.

이전 장관은 "유교·불교·선도 등이 융치법(融治法)되어 함께 삼교(三教) 일치(一致)한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에 문화(종교) 충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할 열쇠가 있음을 보였다.

이전 장관은 "유교·불교·선도 등이 융치법(融治法)되어 함께 삼교(三教) 일치(一致)한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에 문화(종교) 충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할 열쇠가 있음을 보였다.

이항대립제(binary opposition)로 발전해온 서양과 동양이 다를 것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조화와 융합의 전통이 동양에서는 종교로도 나타났다. 이전 장관은 "유교·불교·선도 등이 융치법(融治法)되어 함께 삼교(三教) 일치(一致)한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에 문화(종교) 충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할 열쇠가 있음을 보였다.

"한·중·일 동북아 삼국이 대륙과 반도와 섬이라는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도 서로의 이질성과 동일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문화적 관용주의를 실현해 왔다"고 설명한 그는 동북아 삼국의 하나된 미래가 결코 요원하지

않은데 무게를 두었다.

동북아 균형을 위한 한반도의 역할론에 대해 이전 장관은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했다. "중화사상으로 대변되는 강대한 대륙문화와 대동아공영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해양문화 속에서 한국은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한 그는 삼국의 무역 균형을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로 설명했다.

이전 장관은 "유교·불교·선도 등이 융치법(融治法)되어 함께 삼교(三教) 일치(一致)한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에 문화(종교) 충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할 열쇠가 있음을 보였다.

이어령 前 장관은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가마솥에 비유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불이고, 일본이 불이며 한국은 물과 불을 삼국이 아닌 상생으로 이끈 가마솥의 역할을 한다. "중국의 중화사상과 일본의 대동아공영의 우를 막고 공존·공생의 길로 가려면 한·중·일 삼국이 각기 가위바위보 하는 균형관계론이 필요하다"는 이 전 장관은 동북아 합의 균형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공부(工夫)'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배우(Learn)의 의미지만, 중국에서는 시간(時)의 의미로, 일본에서는 생각한다(think)는 서로 다른 의미를 예로 든 그는, "창조는 평범한 기술의 비범한 결합"이라고 설명하며 삼국의 문화적 이질성에서 새 개념을 창조할 것과 가위바위보를 통해 공존·공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을 대표해 기조강연을 한 지양리빙 소장(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은 '21C 한중일 협력방안 고찰'을 통해 삼국을 이익공동체로 규정하고 ▲공공화 정치적 기초를 통한 정치적 신뢰 구축 ▲공공화 경제기초를 통한 경제적 상호이익의 생산 ▲공공화 문화적 기초를 통한 문화의 상호 접촉 ▲공공화 민간기초를 통한 국민간 상호존중을 주문했다.

일본을 대표한 기조강연에 나선 마루야마 요이치 교수(일본 북간역학대학)는 '한·중·일 공동문화의 재인식과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중·일 삼국의 경제선이 하나의 띠를 넘을 정도로 좁고, 이것을 넘어 상호 왕래하는 것이 간단하고 용이하다는 의미의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중국말을 예로 들어 한중일 3개국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화를 설명했다.

이전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함께 고민한 결과가 한·중·일 모두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공존과 공생을 위한 한중일 각계 전문가들의 실험을 시작했다.

고려 초조대장경은 다문화 집합체

2007 한·일 공동 고려초조대장경 디지털사업 국제워크숍 개최

<남선사 일체경>은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 개보작판, 송판, 원판, 고려 사경, 일본 사경 등 동북아 대장경 문화가 두루 혼재된 컬렉션임이 밝혀졌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가 11월 10~1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개최한 국제워크숍에서 남권희 교수(경상대)와 정재영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남선사 소장의 고려 초조대장경'을 주제로 발표한 남 교수와 정 교수는 "<남선사 일체경>은 한·중·일 삼국의 경전들을 취합해 한 질로 집대성한 경전"이라며 고려 초조대장경의 형태적 특징과 규모 전래경위 등을 설명했다. 또한 경전 뒷면의 찍힌 고려 충선왕의 심왕부(審王府) 인장 근거로 원판 대장경이 중국이 아닌 고려로부터 초조본과 함께 전래됐을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면서 원판대장경의 고려 유통설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연회에서 오윤희 소장(고려대장경연구소)은 대장경 자료 검색을 시연했다.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색 결과는 단순히 개별검색 결과를 보이

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경전 자료를 다양한 조건을 통해 한 화면에서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소장은 똑같은 내용의 경전을 서로 다른 판본으로 대조해 볼 수 있음을 시연해 보이며 "이제차 변천 추정 등 시기별 문헌 연구를 위한 기준점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소는 대장경 검색 및 활용에 UCC 개념을 도입해 일반 사용자 참여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경전 검색을 하면 사용되는 원본에 자기가 번역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입력된 내용은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검색서비스에 반영된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1



대장경 검색 시연을 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소장.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년 대장경 원년의 해를 앞두고 원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간화선 연구자 간다라 시대를 상상하다

보조사상연구원 제5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간화선 연구자들이 사상적 원류를 인도 명상문화에서 찾으며 한자리에 모였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박삼은)은 서울 법원사(주지 보경)에서 열린 11월 17일 제5차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간화선 연구를 마치고 불교 수행론 전반에 관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박삼은 원장은 "정보화시대의 언어와 명상문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간화선 연구를 통해 중국 선종문화의 배경이 되는 인도불교의 명상문화에 대한 본질적 탐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오늘의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불교: 언어와 명상'을 주제로 열린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고대 간다라어로 된 4개의 경전

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앤드류 글라스(일본 교토불교대 강사)는 발표문 '간다라의 수행'을 통해 '간다라에서 해탈도에 이바지하는 수행에 사선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기원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명상심리 치료의 권위자인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은 '명상과 심리치료: 명상유식관법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문에서 초기유식학파의 실천론을 정리했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이 명정의 한계를 벗어나 학문적 영역을 확대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긍정적 비판의 평가가 잇달았다. 한정된 주제를 탈피해 인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영역의 확대를 시도했다

Tip 용어설명

태깅(Tagging)이란? 콘텐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혹은 태그 등의 검색용 꼬리표를 달는 것을 말한다.

UCC(User Created Contents)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콘텐츠(콘텐츠)를 뜻한다. 영상, 사진은 물론 자막, 게시판 답변 등 개인이 제작한 저작물들을 뜻한다.

는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학문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동섭 기자

학술단신

■ 성철 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1일 1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철 스님의 일상의례와 선: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성철 스님이 강조했던 수행법인 능엄주 특종과 백팔배참문의 연원 등이 조명된다. (065) 933-5775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개강안내 12월 6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이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농협408-01-086128 (예금주 : 임병국)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수료후 미국최면의과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학회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대중,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시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판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검쟁세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1577 ~ 1276
일요일 휴일 ~ 심리치유